

## 우울증적 주체로서의 6·25 석방포로

— 김광주의 『석방인』, 김송의 「저항하는 자세」,  
손창섭의 「생활적」을 중심으로

선민서\*

### 요약

1953년 6월 18일에 일어난 반공포로 석방 사건 이후에 김광주, 김송, 손창섭은 6·25 석방포로를 우울증적 주체로 다룬 일련의 소설을 발표했다. 김광주의 『석방인』(1953.7.10-12.31), 김송의 「저항하는 자세」(1954.9), 손창섭의 「생활적」(1954.11)에는 석방반공포로의 우울한 내면 풍경이 나타난다. 『석방인』에서 박철은 사상검증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존재증명에 대한 강박을 느낀다. 빨갱이가 아니라는 자기증명을 위해 반공주의에 매몰되는 석방포로의 모습을 김광주는 재현한다. 「저항하는 자세」에서 상규는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환각으로 철조망을 본다. 복진통일론을 주창하며 대미 전략에 골몰하는 정부와 휴전회담 반대 시위에 몰두하는 대중은 그를 방치한다. 김송은 삶의 진로를 잃어버린 석방포로의 상태를 포착한다. 「생활적」에서 동주는 수상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은 끝에 정신이 무너진다. 피난민의 이복 출신의 난민들로부터 그는 소외된다. 손창섭은 자기를 불신하는 처지로 전락한 석방포로의 불행한 내면을 형상화한다.

남한 정부는 미국의 점전협정 시도에 반발하며 반공포로들을 석방했다. 반미 민족주의에 이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사용가치가 떨어지자 이들을 방치했다. 정부가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은 탓에 석방포로들은 생활 불가능자로 전락했다. 일부는 도민증이나 시민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강제로 징집되거나 불완전한 전향자로 간주돼 군입대를 금지당하기도 했다. 일괄적으로 농촌으로 보내지거나 상경 금지 조치를 듣는 석방포로도 있었다. 이들은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남한사회에서 석방포로는 반

\* 고려대 교양교육원 강사

공적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웠다. 반공애국청년 담론은 부자유한 처지에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은폐한다. 그러나 당대 소설은 6·25 석방포로들의 우울한 내면을 가시화했다.

주제어: 6·25전쟁, 6·25 석방포로, 우울증적 주체,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김광주, 『석방인』, 김송, 「저항하는 자세」, 손창섭, 「생활적」

목차

1. 냉전분단체제의 희생양, 석방반공포로
2. 반공애국청년 혹은 생활 불가능자
3. 6·25 석방포로의 우울한 내면
  - 1) 존재증명의 강박 — 김광주, 『석방인』(1953)
  - 2) 캠프가 계속되는 환각 — 김송, 「저항하는 자세」(1954)
  - 3) 자기에 대한 불신 — 손창섭, 「생활적」(1954)
4. 나가며

## 1. 냉전분단체제의 희생양, 석방반공포로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 이후에 6·25 석방포로를 다룬 일련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김광주의 『석방인』(1953), 김송의 「저항하는 자세」(1954), 손창섭의 「생활적」(1954)은 이른바 6·25 석방포로들을 우울증적 주체로 묘사한다.<sup>1)</sup> 석방반공포로들은 국가로부터 국민이나 시민으로

1) 손창섭의 「조건부」(1957.8)에도 6·25 석방포로가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석방포로 출신의 30대 청년 성갑주가 군인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일부 장면에서 당대에 6·25 석방포로들이 느꼈을 심경을 약간이나마 추론해볼 수는 있다. 그는 “포로 생활을 거쳐 반공 포로로 석방”된 인물로 설명되며(손창섭, 「조건부」, 김종년 편, 『손창섭 단편소설 전집1』, 가람기획, 2005, 452면.) “군복”과(같은 글, 451면) 같은 “유니폼에 대한 일종의 공포증”을 느끼고 연모하던 여성의 애인이 육군 대위라는 사실을 알고 “군인의 주먹이 자꾸만 눈앞을 어른거”리는(같은 글, 461면.) 느낌에 시달리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소설이 반공포로석방사건과 그 이후의 석방반공포로들의 심경을 문제적으로 다루는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 본격

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은 애국청년으로 호명되며 반공국가 남한의 체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53년 6월 18일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sup>2)</sup> 포로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 2만7천여 명을” 탈출시킨 것이다. 남한 정부는 포로송환이 지연되면 반공포로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반공포로 석방은 순전히 포로들의 안전만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었다. 반공포로 석방에는 미국과 북한의 휴전회담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이 아닌 북진통일을 고수했다. 반공포로 석방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남한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sup>3)</sup>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까지 석방반공포로들은 미국에 대항하는 대한민국 자주권의 상징이었다. 정부는 석방포로를 유엔군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같은 해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됐다. 남한의 친미화는 석방포로의 존재론적 위상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급속도로 사용 가치를 상실했다. 사회는 석방반공포로를 존재 가치가 없는 무용한 존재로 치부했다. 친미화하는 남한사회에서 이들은 소외되었다.

석방반공포로들은 대체로 가혹한 사상검증에 시달렸다. 과거 인민군에 부여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한민국 체제를 선택했지만 불완전한 전향자로 치부되었다. 빨갱이나 간첩으로 의심받으며 존재를 부정당하기도 했다. 오직 반공이데올로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만 그들은 간신히 의심 받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적으로 다룰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 양영조, 「반공포로 석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cid=006352&pageFlag=&sitePage=>>, 최종검색일: 2022.9.24.

3) 박재홍,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재조명-협상전략과 원색의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 12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173-174면.

정부는 제대로 된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석방포로들은 정상적인 시민으로 대우 받지 못했다. 더 이상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면 좋은 삶이 펼쳐지리라는 기대도 불가능했다. 집이나 직장을 얻지 못해도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여겨질까 하소연하기도 어려웠다. 여러모로 6·25 석방포로들은 우울증적 상태에 고착되기 쉬웠다.

프로이트의 「슬픔과 우울증」에 의하면<sup>4)</sup> 대상상실의 상황을 수용하고 일상성을 회복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을 거쳐 상처를 극복한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대상상실을 자아상실로 받아들인다. 정신적 건강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울증적 상태에 빠진다. 당대의 석방반공포로들은 정상적인 애도의 수순을 밟기 어려웠다. 실함과 이산의 상처를 치유할 겨를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포로수용소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죽음을 애도할 여유도 부족했다. 참전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전향의 진의를 의심받기 쉬웠다. 북한에 대한 절멸을 공공연히 주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6·25 석방포로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울한 내면을 지낼 가능성이 컸다.

기존의 연구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깊이 내면화함으로써 국민화 과정을 거친 존재로 석방포로를 의미화한다.<sup>5)</sup> 석방포로들의 수기자료집<sup>6)</sup>이나 증언록<sup>7)</sup>을 통해 6·25 석방포로의 상황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반공포로

4)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윤희가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1997(2020), 243-267면.

5) 이동현,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韓國史學輯』 40,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 2006.

6) 최철우, 「990일(일명 꽃피는 철조망)-반공애국청년의 수기」, 1954(해당 자료는 ‘케포이북스 편집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 케포이북스, 2013,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5230&tabNodeId=NODE03761734>>, 최종검색일: 2022.9.24.’에 수록되어 있다.); 황세준, 『신생의 날-6·18반공애국청년석방기록』, 공우사, 1954; 석보, 『피묻은 철조망-반공애국포로석방비사』, 연합신문사, 1954.

7) 송효순, 『대석방-실록반공포로석방』, 신현실사, 1973.

석방 당시의 정황을 담은 석방포로의 수기집인 최철우의 「990일」(1954.4)이 대표적인 예다. 반공국가의 이데올로그로서 북진통일론에 동조하며 “멸공”을<sup>8)</sup> 위해 “최일선”에 나서겠다는 주장하는 석방포로의 회고가 제시된다. 수기집의 필자들은 반공포로석방사건을 ‘나의 이야기가 아닌 반공포로라는 집단적 정체성의 형식을 빌려 기술했다.’<sup>9)</sup>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불충분한 계획으로 인해 석방포로들이 겪었던 혼란상과 포로수용소 감시병이었던 미군에 의한 피해상은 극히 일부 제시되어있을 뿐이다.<sup>10)</sup> 사상검증에 시달렸던 이들은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여과 없이 토로하지 못했다. 석방포로들이 이후에 남한 정부로부터 방치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었다는<sup>11)</sup> 기술이 자기서사의 형태로 발화되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석방인』이나 「저항하는 자세」, 「생활적」과 같이 석방포로의 내면을 서술한 소설을 통해 이들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다. 김광주, 김송, 손창섭에 관한 작가론이나 『석방인』, 「저항하는 자세」, 「생활적」에 관한 작품해석을 통해 당대의 석방포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sup>12)</sup>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성취에 기초해 당시 소설에 나타나는 석방포로의 우울증적 내면의 다양한 양태들을 탐색할 것이다. 각각의 작품에서 나오는 석방포로의 내면에 대한 묘사 양상이 지니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애국포로”라는<sup>13)</sup> 화제 하에 6·25 석방포로를 분석했

8) 최철우, 앞의 글, 224면.

9) 임세화, 「포로라는 이념: 한국전쟁 ‘포로서사’와 ‘자기구성’의 가능성」,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83면.

10) 최철우, 앞의 글, 213-219면.

11) 송관호, 『전쟁포로-송관호 6·25전쟁 수기』, 눈빛출판사, 2015.

12) 조명기, 「손창섭의 「生活的」에 나타난 전후의식」,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2005; 홍원경, 「손창섭 소설의 미의식과 정신병리 양상 고찰」, 『우리文學研究』 33, 우리문학회, 2011; 최미진, 「반공포로의 석방과 국민형성의 딜레마-김광주의 『석방인(釋放人)』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3-65면.

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해방기나 전후의 귀환 포로를 ‘애국포로’로 통칭한다. 그런데 6·25전쟁 시기에 발생한 석방포로는 독특성을 지닌다. 미국에 대항하는 이승만 정부의 전략에 의해 석방된 특수한 경험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해방기에 일제에 의해 풀려난 포로들이나 정전협정 이후 송환된 포로들과는 다른 내면세계가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방포로들은 언제나 비국민의 처지로 내몰릴 수 있었다. 당대 소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발화될 수 없는 잔여로서의 6·25 석방포로의 내면을 재현한다. 본고에서는 정전협정을 전후한 시기인 1953년부터 1954년 사이에 발표된 6·25 석방포로 소재 소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석방포로의 우울증적 내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는 전후의 정신적 상흔을 추적하고 냉전분단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기원적 폭력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2. 반공애국청년 혹은 생활 불가능자

남한사회에서 6·25 석방포로들은 반공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건국신화에 이용되었다. 석방포로들은 남한 사회에 의해 애국청년으로 호명되었다. 반공국가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는 석방포로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기사화되었다. 남한사회는 “반공청년”이라는<sup>14)</sup> 표상을 강조하며 이들을 반공이데올로기 전파의 수단으로 삼았다. 반공석방자들은 언론을 통해 “반공애국청년”으로 거듭났다. 석방포로는 “애국청년의 표상”이었다. 정부의 선전에 따라 국민들은 반공포로의 석방을 환호했다.<sup>15)</sup> “반공애국포로”에게<sup>16)</sup> 동포애를 발휘하지는 언론

---

13) 이민영, 「한국소설에 나타난 애국포로 서사와 반공국가의 불안」, 『한국현대문학연구』 55, 한국현대문학학회, 2018, 247-284면.

14)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282면.

의 요청이 쇄도했다. 1953년 6월 25일에는 “반공석방자”라고<sup>17)</sup> 불리던 “반공애국포로”를 “반공청년”이라고 부르지는 사회부의 제안이 제출되었다. 국가는 반공 이념으로 무장한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의 반공애국청년을 기획했다.

전후에 반공포로들은 남한 정부의 선전과 다르게 미국민 취급을 받았다.<sup>18)</sup> 남한사회는 석방포로 중 완전한 전향자를 가려내고자 했다. 불온하고 불순한 빨갱이를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른바 반공청년 담론이 담론장을 주도했다.<sup>19)</sup> 석방포로들은 상상전에 이용되었다. 석방포로를 소외시킴으로써 남한사회는 결집할 수 있었다. 석방포로들은 끊임없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존재 증명을 요구 받았다. 갱생했다는 고백이 그들에게 강요되었다. 석방포로들은 강박적으로 반공주의적 수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이승만 정부는 반공석방자들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제스처를 취했다.<sup>20)</sup> 석방된 반공포로들을 위한 환영회도 거행되었다.<sup>21)</sup> 그러나 그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가까웠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석방포로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sup>22)</sup> 전향을 장려한 것은 남한사회 체제 선전을 위한 행동일 뿐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석방포로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라 독려할 뿐 자신의 책임을 방관했다. 석방자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15) 「우리의 심정은 이렇다」, 『조선일보』, 1953.6.22.

16) 「참다운 동포애(同胞愛)를」, 『조선일보』, 1953.6.21.

17) 「反共靑年(반공청년)으로改稱(개정)」, 『동아일보』, 1953.6.25. 이같은 조처는 사회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반공포로들은 “반공애국 포로”라고 불리기도 했다. 「反共靑年(반공청년)이라變更(변경) 反共釋放者(반공석방자)의名稱(명칭)」, 『조선일보』, 1953.6.28.

18) 이동현, 앞의 글, 2006.

19)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69-370면.

20)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426면.

21) 「“이들을 따듯이” 反共釋放者歡迎會盛況(반공석방자환영회성황)」, 『동아일보』, 1953.6.24.

22) 송관호, 앞의 글, 234면.

간신히 생존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극빈층으로 전락해 자살하는 반공 청년에 관한 소식들이 보도되었다.<sup>23)</sup>

이승만 정부는 석방포로들에 대한 강제 징집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예컨대 내무부와 국방부가 마산경찰서에 지시를 내려 탈출 포로들을 모두 국군으로 입대시키라고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연령 초과자나 신체 허약자를 제외한 석방포로 중 대다수가 재입대해야 했던 것이다.<sup>24)</sup> 이후 국군으로 바로 편입시키기보다는 남한 시민으로 동화시킨 후에 자원에 의해 징병 조치를 강구하라고 방침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입대했다.<sup>25)</sup> 석방포로 중 일부는 1960년대 까지도 일괄적으로 징병 대상자로 분류되었다.<sup>26)</sup> 석방포로들이 이미 극한의 전쟁폭력에 시달렸던 자들이라는 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설령 석방포로들이 자원한 경우라 해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군장성들은 “국군에 편입”시켜<sup>27)</sup> “북진통일의 선봉에 서게” 해달라는 반공애국청년들의 요청에 감격했다지만, 석방포로들은 재입대를 거부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돼 숙청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석방포로들 중 일부가 멸공전사로서 반공전투에 나가겠다는 국군 지원 혈서를 제출한 것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sup>28)</sup> 사상적 순

23) 「市內(시내)에또두件(건) 變死事件發生(변사사건발생)」, 『조선일보』, 1956.9.18.; 「職業(직업) 없어죽는다고 反共青年自殺(반공청년자살)」, 『경향신문』, 1958.12.18.; 「反共青年(반공청년) 두 명(명)이自殺等(자살등)」, 『동아일보』, 1959.1.3.

24) 조성훈, 앞의 글, 427면.

25) 위의 글, 366-367면.

26) 석방반공포로 중 193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들은 “징병의무가 있는 자”로 간주되었다. 광주군청, 「귀순자 및 반공포로 석방된 자에 대한 징집 및 입영 연기 처리 잠정 규정」(관리 번호 BA0172372), 경기도성남시고등동, 1962.4.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 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13315&dsid=000000000006&gubun=search>>, 최종검색일: 2022.9.24.

27) 「反共戰士(반공전사)에銃劍(총검)을 釋放青年(석방청년)들血書入隊志願(혈서입대지원)」, 『동아일보』, 1953.6.22.

28) 송관호, 앞의 글, 206면.



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원입대를 추동했던 것이다. “청년실업”의<sup>29)</sup>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자 “징집”을 희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진정한 의미에서 자원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석방포로들의 군입대는 “신념”이<sup>30)</sup>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다.

문제는 석방포로들의 재입대마저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일각에서는 석방포로들에게 국민 자격이 없다며 자원입대를 막았다.<sup>31)</sup> 그들은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군은 석방포로의 군입대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sup>32)</sup> 석방포로의 군입대를 둘러싼 국가의 정책은 혼란스러웠다. 재입대를 강제하는 정책이나 그것을 강압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모두 반공국가주의의 결과였다. 그 속에서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귀속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대한 석방포로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대책도 미비했다.<sup>33)</sup> 징집된 석방포로 중 상당수는 1956년 10월에 군역을 마치고 제대했다. 그러나 재입대를 마친 이후에도 석방포로들에게는 인민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정부는 요시찰 인물로 분류해 이들을 감시했다. 도민중이나 시민증을 발급받지 못한 석방자도 있었다. 그 바람에 일부는 거류지를 정할 수 없었다.<sup>34)</sup> 일반 시민들은 석방포로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반공포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관 숙박을 거절하는 자도 있었다.<sup>35)</sup>

29) 이기훈, 앞의 글, 283면.

30) 조성훈, 앞의 글, 366면.

31) 「志願兵(지원병)의募集中止(모집중지)」, 『조선일보』, 1953.7.10.

32) 조성훈, 앞의 글, 367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8월 10일에 경찰 당국은 석방 반공포로에게 국군입대를 하라는 전단을 일방적으로 배포했다. 남한사회에서 연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포로들은 군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1953년 7월 4일 이후 반공포로 1,300여 명이 군에 입대했으며 600여 명은 전투경찰로 배치되었다. 판문점에서 설득 과정을 거쳤던 석방포로 역시 전체의 44.5%에 달하는 3,374명이 1954년 3월 22일자로 군에 입대했다.

33) 조성훈, 앞의 글, 428면.

34) 송관호, 앞의 글, 295면.

35) 위의 글, 215면.

대다수 석방포로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공에 국청년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생활 불가능자일 가능성이 컸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석방반공포로를 한꺼번에 귀농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sup>36)</sup> 경찰 당국은 서울이 혼란하다며 석방포로들의 상경을 금지했다.<sup>37)</sup> 또한 그들은 취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 이전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별도의 학력고사를 보았다.<sup>38)</sup> 별도의 기술교육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소외되었다. 점차 언론에서는 반공포로들을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위험인물로 묘사했다. 냉혹한 시선을 보내는 시민들 역시 있었다.<sup>39)</sup>

당대 소설들을 통해 부적응자로 내몰리기 쉬웠던 6·25 석방포로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다. 『석방인』에서 석방포로는 존재증명에 대한 강박에 시달린 끝에 반공주의자가 된다. 「저항하는 자세」에서는 석방 이후에도 여전히 수용소에 있다는 환각에 시달린다. 「생활적」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의심에 시달린 끝에 그 자신마저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병리증상을 나타낸다.

36) 「歸農方針樹立(귀농방침수립) 釋放愛國捕虜救護策(석방애국포로구호책)으로, 『경향신문』, 1953.6.24.

37) 「八月三日(팔월삼일) 以後(이후) 無許建物(무허건물) 撤去(철거)」, 『동아일보』, 1953.8.17.

38) 「反共愛國青年(반공애국청년)의就學許可(취학허가)」, 『경향신문』, 1953.10.21.; 「反共愛國青年(반공애국청년)」, 『조선일보』, 1953.10.22.

39) 「反共捕虜辱說(반공포로욕설)로一貫(일관) 說得再開初日(설득재개초일)의光景(광경)」, 『동아일보』, 1953.11.1.

### 3. 625 석방포로의 우울한 내면

#### 1) 존재증명에의 강박 — 김광주, 『석방인』(1953)

김광주의 『석방인』에서<sup>40)</sup> 석방포로는 존재증명에 대한 강박에 시달린다. 작중에서 박철은 사상검증을 요구받는다. 그는 반공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고자 한다. 석방포로가 반공적 주체가 되어가는 경위를 소설은 재현한다. 이 작품은 반공이데올로기를 강박적으로 실천하는 석방포로를 비판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반공국가주의로 인해 강박적인 내면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포착한다. 당대에 많은 석방포로들은 자기증명을 위해 과잉된 반공이데올로기를 학습했다.<sup>41)</sup>

『석방인』의 전반부에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 이후 석방포로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석방포로들 중에는 남한사회에 전혀 연이 없는 이들이 많았다. 미군과의 협의 없이 본국으로 송환

40) 김광주, 「석방인」, 『한국현대문학전집11』, 삼성출판사, 1978(1981). 이번 장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때 편이상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기했다.

41) 반공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석방반공포로가 생존에 성공하는 서사를 작가의 반공주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문을 통해 “어리석은 인간에게 권력이나 무력을 맡겨두면 적은 데서는 한 직장 크게 봐서 한 민족 한 국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암흑과 사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려 버린다는 것이다. 그릇된 사상과 엉뚱한 권력의 허수아비가 되어 버린 김일성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고 무엇이랴.”라고(김광주, 「전쟁·인류·자유」, 『전시문학독본』, 1951, 14면. 이 글은 ‘케포이북스 편집부, 앞의 글’에 수록되어있다.) 김광주가 자신의 반공주의적 사유를 피력한 바가 있지만, 『석방인』의 서사는 반공주의로 수렴되지 않는다.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석방포로의 비참한 처우에 대한 묘사가 『석방인』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묘사를 반공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작가의 정치적 무의식이 작동했다고 간주할 만한 개인사에 근거한 단서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석방포로들이 반공적 주체가 되어가는 양상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서사를 썼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생존을 위해 반공주의에 투신하는 석방포로들이 그의 주변에 많았을 것이다. 관련 보도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공이데올로기가 되는 석방포로 이야기는 그에게 개연성이 높은 서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될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남한정부가 임의로 석방한 반공포로들이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석방포로들은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주거를 얻지 못했다.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닥치는 대로 떠돌아다녔지! 여관에서도 자고, 술에 취해서 알지 못하는 하꼬방 바닥에 쓰러진 채 밤도 새우고 ……”라는(388면) 표현에는 석방포로들이 제대로 된 거처를 얻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박철은 기숙할 거처를 마련해준다는 빌미로 집주인 여자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 그 바람에 죄 없이 유부녀의 남편에게 “몹시 얻어 맞아서 코피를 흘린 코를 수건으로 막은 절뚝발이”가(356면) 된다. “코피를 흘리고 헌병에게 끌려가”기도(356면) 한다. 기숙하던 거처에서 “새벽같이 도망꾼처럼 뛰쳐 나”와도(356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356면) 못한다.

석방포로들은 이북에서 왔다는 말만으로도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받았다. 박철은 상이군인처럼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에게마저 괘시를 받는다. 그는 이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취급을 받는다. 주변 이들은 그에게 “북쪽에서? 그러면 …… 뭐란 말이야? 김일성 괴뢰 집단의 스파이란 말이나?”고(372면) 따져 묻는다. “우리들은 다 같이 괴로운 조국의 운명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일 뿐입니다.”라고(373면) 그는 항변한다.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박철은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그는 자신을 조국을 찾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국가를 찾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의심에 시달렸을 석방포로들의 깊은 고립감과 우울감을 짐작할 만하다.

“헌병대서도 그는 큰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진 사나이다. 아무데서도 그는 필요치 않다는 사나이다.

이것은 박철의 일종 패배자로서의 자포 자기의 꼬부러진 심경임을 그

스스로도 잘 안다. 그러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아 줄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조국을 찾을 권리도 양심도 없는 사나이.

국가의 폐물.”(374면)(인용자 강조)

석방포로들은 생의 의지를 상실하기 쉬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표면화되기는 힘들었다. 박철은 “막상 간히있던 울타리 속을 박차고 이렇게 넓은 나의 옛땅에 내동댕이쳐져 놓고 보니깐 도리어 이 병신 몸뚱어리를 해 가지고 잔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존하고 있는 내 자신이 스스로 저주스러울 뿐이야!…… 차라리 죽어 없어졌던들…… 그편이 얼마나……”라고(388면) 되된다. 소설에는 석방포로들이 느꼈을 비참한 심경이 반영되어있다.

석방포로들은 전전에 자신이 해왔던 일로 복귀하기 어려웠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석방포로들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지니기 쉬웠다. 박철은 참전과 반공포로석방 이후 본래의 직업을 잃고 방황한다. 그는 “낙오자, 패배자의 쓸쓸한 심경”을(378면) 가진다. “북한의 실정을 폭로한 반공 작품으로 공산주의의 죄악성을 묘파하고 골육상쟁의 처참한 모습을 심각하게 박력 있게 표현”한(378면) “「석방인」이라는 작품이 성황리에 상연되고 있지만 정작 석방포로인 박철은 연출가로 활동하던 과거와 다르게 연극계에서 소외된다.

복을 위해 종사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석방포로들은 남한사회에서 배척 받을 가능성이 컸다. 월북을 했던 인민군이 되어 남한에 지인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될 확률이 높았다. 『석방인』에서 사람들은 인민군에 부역했던 과거를 깊이 후회하는 박철을 계속해서 단죄한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월북했던 자신을 낚아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매섭다. 불륜이 죄인 것처럼 인민군에 부역한 행위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여겨진다. 과거의 지인들로부터

터 외면을 당하며 박철은 “폭풍우 속에 혼자 서서 모진 바람과 비를 죽죽 맞고 있는 그런 심경”(377면) 느낀다. 그는 “억천만 개의 회살이 한 개의 초점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가슴패기를 향해서 일제히 몰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생의 폭풍우 속”(377면) 있다고 여긴다. “소생? 천품? 재질? 난 인제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 조국이란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난 훌륭한 민족적 과오를 저지른 범죄자”라며(388면)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석방인』에서 박철은 경찰에 의해 비국민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는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해 유사시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당대의 석방포로들은 주거도 직장도 없는데 도민증이나 시민증을 발급받지 못해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이기 쉬웠다.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붙들린 박철은 신분증이 없는 탓에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시…… 시…… 신분증이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 그러면 직업은 뭐야?”

**“직업도 갖지 못하구요……”**

“아니…… 그럼 집은 어디냐 말야?”

**“집도…… 집도 없구요…… 주소도 일정치 않은…… 허허……”**

**“이건 정말 수상한 놈인걸!…… 안 되겠어! 그대로 보낼 수는 없어! 정신은 아직 말뚱말뚱한 모양인데…… 무직 무주소라니……”(413면) (인용자 강조)**

석방포로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고립무원의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특히 타인에게 존재 증명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비국민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석방포로에 대한 관심은 점차 축소되었다. “과거 포로였던 이른바 석방인들이 전후 남한에서 조우해야 했던 현실이 정부나 미

디어의 선전에서처럼 결코 ‘동포애’로 가득한 가족적 환대가 넘치는 것이 아님”을<sup>42)</sup> 석방자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정과 “환도”(418) 소식에 관한 이슈들이 제기되며 석방반공포로들에 대한 관심이 현격히 줄어드는 현실이 『석방인』에서 조명된다. 작중에서 대중들은 석방자들의 처우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한국 천지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세계의 시청을 집중시키던 포로 석방의 센세이셔널한 소식도, 하루 이를 사흘 동안에 각 신문지상에서도 ‘뉴우스 벨류’가 이미 희미해”져간다.(418면)

박철은 조강지처를 버린 채 공산주의 사상을 지녔던 과거를 반성하며 반공주의적 연극운동에 투신한다. 이 소설에서 석방포로가 갱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공주의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는 제자의 후원으로 “불행한 사람들-석방포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상이군인이라든지,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444면) “석방관” 건립을 통해 연출가로 복귀한다. 그의 후원자는 이미 반공주의 연극을 기획했던 사람이다. 그가 주도하는 연극운동 역시 반공주의적 색채를 지닌 것일 확률이 높다. 자신이 공산당에 협력해 “주의”나(441) “사상”을 가지려 했던 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그는 반성한다.

『석방인』에서 박철은 반공주의적 연극을 창작하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한다. 이러한 석방포로에 대한 묘사는 존재증명에 시달리다 반공적 주체로 변모해갔던 그들의 강박적인 내면을 재현한다. 6·25 석방포로들은 당대에 지속적인 사상검증에 시달렸다. 그렇기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공애국청년의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석방인』에는 6·25 석방포로들이 전후의 남한사회에서 겪는 곤경이 그려진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에서 홍보하는 반공애국청년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진실한 내면을 은폐했을 것이다.<sup>43)</sup> 존

42)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수용소의 삶과 '적/ 동지'의 구별 정치- 한국전쟁 포로들의 UN 군 관리 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47면.

재 증명에의 강박에 빠진 채 석방포로 청년들은 반공주의자가 되어갔다.

## 2) 캠프가 계속되는 환각 — 김송, 「저항하는 자세」(1954)

김송의 「저항하는 자세」(1954.9)는<sup>44)</sup>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시점의 남한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전의 시점에도 반공석방포로는 혼돈 속에 있었다. 작중에서 석방포로 상규는 석방 이후에도 여전히 캠프가 계속되는 환각에 시달린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진로를 잃어버린 석방포로에게 세계는 수용소의 연장이다.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표명하며 북진통일론을 주창했던 이승만 정부는 상규의 진로에 무관심하다. 대중 역시 갈 곳을 잃은 상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저항하는 자세」에서 상규는 석방된 직후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포로가 아니고 시민이 되었다라는 긍지와 기개가 새로왔다.”고(80면) 느꼈다. 자신이 “자유시민의 생활을 선망(羨望)했던 것”을(81면)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좌절된다. 포로수용소에 있을 당시만 해도 그는 북진통일을 주창했다. 그러나 석방 이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는 절망한다. 그리고 북진통일론의 허상을 깨닫는다.<sup>45)</sup>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가 이미 자신을 찾아 남하했으

43) 『석방인』의 또다른 석방포로 남민 역시 국가에서 홍보하는 애국청년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는 26세에 불과하며 “한국 천지에 아는 사람이라곤 없”는(394면) 인물이다. 그 역시 “삼십대의 희망”(445)을 자임하고자 하며 “극장표를 팔아도 좋고…… 문간에서 표를 거두는 것을 팔아도 좋고…… 그러면서 연극 공부를 해서…… 연출 공부를 해서……”라고 말하며 친취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44) 김송, 「생활하는 자세」,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 이번 절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때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기했다.

45) 기존의 연구에서는 「저항하는 자세」에 나타나는 북진통일론을 주창하는 신경증적 주체들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민영, 앞의 글, 260-264면 참고.) 그러나 이 소설은 남한 체제에서 홍보하는 북진통일론과 자신의 삶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주체의 양



며 그 과정에 만난 미군 병사와 사실상 재혼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그는 절망에 빠진다. 유엔군의 아이를 낳은 아내에 대한 묘사는 친미화하는 남한사회 분위기에 동참할 수 없었던 석방포로의 존재론적 위상을 반영한다. 상규의 서사는 당대 휴전회담 반대 시위의 허구성을 폭로한다.<sup>46)</sup> 반공적 민족주의의 한계가 나타난다.

석방포로들의 남한 사회로의 수용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갑작스럽게 탈출하게 된 이들은 갈 곳을 모른 채 방황했다. 탈출 지시를 받은 이들은 자신을 석방시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석방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상규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야 자신이 탈출한 내막을 비로소 알게 된다. 반공포로 석방은 계획적이지 못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반공포로들에게 경험되었다. 석방포로들은 석방의 과정에서 미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갈 곳을 알 수 없어 당황하

---

상을 포착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이 수록된 『현대소설선』(1954)의 경우 편권지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 부시자.”라고(「우리의 맹세」,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 267면.) 적으며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소설은 선집에서 예외적으로 반공주의 작품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따라 북진통일 가두시위를 벌였던 군중들과 다르게 이 소설의 석방포로 상규가 통일을 바라는 동력이 되어야 할 아내와의 관계를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항하는 자세」를 반공이데올로기를 따라 계속해서 북진통일을 외치는 것의 무상함과 무용함을 암시한 작품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에 묘사된 석방포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반공주의를 그저 내면화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와 자신들의 삶 사이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비판 상태에 빠져있는 우울증적 주체다.

- 46) 김송은 반공주의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북이 고향이었던 탓에 북한에 대해 마냥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1972년에 발표한 산문 「두고온 산하:감홍.본궁.그외」에서도 이북의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피력한다. (김송, 「두고온 산하:감홍.본궁.그외」, 『북한』 7, 1972.) 국제적으로 테당트 국면이 조성되며 7·4남북공동성명이 진행되던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북한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시종일관 찬성하지는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해방기 문단에 대한 회고에서도 그는 이념 대립을 일삼던 문인들과 거리를 둔다. (김송, 「문단의 좌우의 대결과 백민문학」, 『북한』 164, 1985.) 회상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윤색했을 수는 있지만, 그는 『백민』을 발행하던 당시에도 좌익과 우익 인사들의 글을 비교적 균형 있게 실은 바 있다. 적어도 그가 평생에 걸쳐 반공주의의 일변도의 사상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다.

고 방향해야 했다. 상규는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으나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된다. 그는 연고자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석방된다. 석방포로 상규는 탈출 이후에도 “어디로 가야만 하느냐? 그는 향방을 몰랐다. 그보다도 지금 서 있는 지점이 어느 곳인지도 몰랐다.”고(78면) 말한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는 지나가던 행인의 물음에도 “향방을 몰라서”라고(79면) 답한다. “부산 시내에 아는 사람 있”느냐는(79면) 질문에 “없는데요.”라고(80면) 대답한다.

포로수용소에서 반공주의를 학습하지만 석방 이후 자신의 삶은 반공이 데올로기를 무작정 따를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규는 깨닫는다.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까지 출산한 상황은 그에게 깊은 고립감을 준다. 소설은 “무엇에 대한 끝 없는 증오로 피잉 도는 것 같았다. 가슴에 피가 머리로 상기된 탓인지도 몰랐다. 눈앞까지 캄캄해 졌다. 다리 매듭이 후들후들 떨리고 오금이 잘 띄어 지지 않았다.”고(85면) 그의 내면을 서술한다.

석방포로들에게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남한 체제의 홍보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의미화될 수 없었다. 상규는 자신이 이승만 정부와 북한 정부, 그리고 미군 사이의 알력 관계 속에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탈출한 이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다. “단독적 포로석방은 UN군사령관의 권한침해 정전협정 거의 무망공경에 함입 적 반공포로 체포를 요구!”(86면), “UN군의 행동도 독단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라 7개 포로수용소에서 이만 육천삼백명탈출 자주권 행사의 제일보”라는(86-87면) 신문을 보고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다. “자신이 이만 육천 여 명 가운데에 속하는 한 사람이”며(87면) 반공포로 석방이 “한국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큰 중대한 대사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어슴프레히 알게”(87면) 된다.

“이대통령 및 그 정부가 남한 수용소에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구천 명의 반공포로들에 대한 자유를 요구함으로써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는(87면) 보도 내용은 더 이상 상규의 처지를 개선시켜주는 이슈로 인지되지

않는다. 남한 정부가 홍보하는 반공국가 체제와 그에 부응하기 위해 주창해왔던 북진통일론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규가 감지했기 때문이다.

「저항하는 자세」는 석방 이후의 석방포로의 심경 변화를 묘사한다. 북진통일에 대한 그의 인식은 반공포로 석방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전환된다. 석방 이전에 상규는 하루 빨리 북진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인물로 묘사된다. 포로수용소에서 “북진통일의 슬로건을 절규하던 시위행렬을 목도”하고(75면) “이북 고향에는 늙은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색씨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주먹을 부르짖고 군중과 더불어 분노”했던 그의 북진통일에 대한 견해는 석방 이후에 바뀐다.

북진통일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게 된 상규는 반공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둔다. 북진통일론은 더 이상 상규의 삶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테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미군의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박대를 당한 후에 그가 마주친 휴전회담 반대 시위대의 모습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87면) 구호를 연발하는 “행렬은 신작로를 넘쳐 북으로 북으로 나아”가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자유를 향한 것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상규는 수용소 바깥의 남한 사회를 수용소와 마찬가지로 부자유하다고 느낀다.

그는 북쪽에도 가고 싶고, 남쪽에도 가고 싶었다. 갈 곳이 없었다. …… 옷은 시민처럼 같아 입었건마는, 자유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앞도 뒤도 감감하였다. 그는 저 먼 곳에서 멸망의 붉은 신호가 명멸하는 듯 또는 자기의 들머리가 온통 ‘캠프’의 세계인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켰다. 생명의 진을 뿜던 ‘캠프!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회색의 ‘캠프’는 여기까지 따라와서 들쭉우는 것 같아, 앞으로 마구 뛰어갔다. 어디로 가는가? 의식 없이 뛰어가다가 그는 친구령에 쓰러지고 말았다. 정기 없이 뜨여진 안막(眼幕)에 무수한 철조망이 가로세로 닳아왔다.”(87-88면)(인용자 강조)

그는 북진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창하며 반공이데올로기에 부응하고자 했던 이들과 다르다. 군중들은 휴전회담에 반대하며 정부의 입장을 따라 북진통일 가두시위를 벌인다. 그렇지만 상규는 수용소 안에 있던 시절과 달리 그들의 행렬에 동조하지 않는다. 북으로 가자고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은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다. 그는 결국 석방 이후의 삶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수용소의 계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그는 마침내 그의 눈앞에 수용소 철조망이 드리워지는 환각을 본다. 남한사회에서 방치된 6·25 석방포로들에게 세계는 수용소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저항하는 자세」는 충분한 대책 없이 반공포로들을 석방시킴으로써 이들을 사지로 내몬 남한 정부와 탈출 과정에서 이들을 죽게 만든 유엔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생산한다. 상규는 수용소 바깥 역시 마치 부자유한 수감생활의 연장처럼 느낀다. 상규는 국가의 체제 선전에 따른다 해도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주체다. 이 소설은 당대의 반공 국가주의에 내재한 균열을 직시한다. 그리고 6·25 석방포로들이 우울증적 주체로 탄생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 3) 자기에 대한 불신 — 손창섭, 「생활적」(1954)

손창섭의 「생활적」(『현대공론』, 1954.11)에서<sup>47)</sup> 석방포로 고동주는 주변인들의 의심에 시달린 끝에 자기에 대한 불신에 빠진다. 남한 정부에서 홍보하는 반공애국청년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고동주의 형상은 사뭇 다르다. 그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박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수용소가 계속되는 것처럼 느끼지도 않는다. 그는 석방 이후의 삶이 수용소에서보다도 더 못하다고 여긴다. 공포정치의 주체인 공산당과 인민재판의

47) 손창섭 저, 김중년 편, 「생활적」, 『손창섭 단편 전집1』, 가람기획, 2005. 이번 절에서 이 작품을 인용할 때 괄호 안에 면수만을 표기했다.

주재자인 적색 포로들로 인해 고통 받을 당시의 그에게는 최소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남으로 가면, 수용소 바깥으로 나가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동주는 석방 이후에 포로수용소에서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서사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른 체제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한다. 동주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이북에서부터 발 빠르게 월남하지 못해 인민군에 징용되었다. 약삭빠른 사람들이 인민군 징용을 피해 월남한 것과 다르게 그는 군에 끌려간다.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심리적 외상에 시달린다. 포로수용소에 있을 당시에 공산 포로들에 의해 폭력을 당했던 일은 그에게 외상적 사건으로 기억된다. 동료가 적색 포로에게 맞아 죽고 그 자신 역시 인민재판장에 끌려갔던 일은 그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가져다준다. “동주의 감은 눈에는 포로 수용소 내에서 적색 포로에게 맞아 죽은 몇몇 동지의 얼굴이 환히 떠오르”기도(98면) 하고 “올가미에 목이 걸린 개처럼 버둥거리며 인민 재판장으로 끌려 나가던 자기의 환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석방 이후의 삶은 그런 그의 삶을 위무하기는커녕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고동주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던 당시는 “모든 사람이 반공포로 석방에 감격하여 극도로 흥분해 있던 시기”다.(102면) 당대의 분위기에 동화된 동창이자 친지인 사람으로부터 동주는 거처할 장소를 구한다. 그러나 환대의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동주는 이내 친식의 가족들에게 냉대를 당한다.

**동주가 반공 포로수용소를 나온 것은 두어 달 전 일이었다.** 근 1주일이나 낮선 집에서 신세를 졌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주의 어깨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 6년 만에 보는 친식이었다. 그는 바로 동주의 소학 동창일 뿐 아니라 8촌 처남이기도 했다. **그때는 모**

든 사람이 반공 포로 석방에 감격하여 극도로 흥분해 있던 시기다. (생략) 천식에게는 노모와 자기 부처 외에 어린애 둘이 있었다. 그는 6·25 사변 전에 월남해 있었다. 1주일이 못 가서 천식의 노모와 그 부인은 동주 앞에서 노골적으로 좋지 않은 얼굴을 했다.(102면)(인용자 강조)

결국 천식이 가족을 데리고 상경할 때 동주는 함께 서울로 가지 못한다. 당시 석방포로들의 서울 진입을 금지했던 시대적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동주가 상경하지 않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주는 연고자가 없는 피난지에 홀로 고립된다. 이북의 고향과 가족이 떠올라도 만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앗혀진 물건처럼 방한구석에”서(113면) “죽은 듯이 그러고 누워 있는”(107-108면) 것뿐이다. 「생활적」의 서사는 이승만 정부 하에서 석방포로들이 실상 체제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대중들 역시 일시적으로 그들을 환영했지만 빠른 속도로 외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동주가 이북에서 고향력자였다고 해도 남한에서 그것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힘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당대의 석방포로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표상으로 활용되었던 사실을 환기할 때, 영어를 통해 직업을 구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반공애국청년으로서의 상징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므로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친미 냉전주의의 희생양이었던 이들은 그만큼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 결국 그는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에 무의미를 느”킨다.(103면) “직장은 얻어걸릴 것 같지 않았고, 눈에 보이게 건강은 점점 나빠만 가서 어떻게는 될 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 이웃집의 봉수는 “누워 있는 동주를 경멸의 시선으로 넌지시 넘겨다보며, 학교 공부를 해서 영어도 제법 한다면서 왜 맨날 저러고만 누워 있느냐고” 탓하고 “영어에만 통하면 돈벌이

가 무진장으로 있다”고(97면) 말하며 “미군을 붙잡고 영어 연습을” 한다. 그러나 동주는 직업을 얻지 못한 채 오랜 시일을 소요한다. 이북에서는 고학력자에 해당했던 그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판잣집을 팔아 “아편장사”라도(111면) 해야 하느냐고 말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피난민촌에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부재하며 게다가 극도로 위생이 불결하기까지 하다. 동주에게 그곳은 포로수용소보다도 못한 장소로 감각된다. 더럽고 열악한 피난민촌의 환경은 가뜩이나 온전치 못한 그의 정신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전염병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거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그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다. “산 전체가 거름더미같이 지린내와 구린내를 쉴 사이 없이 발산”하고(100면) “여러 번 그 지독하게 독한 인분을 뺨”을 수밖에 없는 바라크촌에서 그는 안식하지 못한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집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93면) 느낌이 들 만큼 판자촌의 상황은 열악하다. 그 속에서 “훈기에 섞여 배어드는 지린내와 구린내를 어쩔 수 없듯이, 젖은 옷처럼 전신에 무겁게 감겨드는 우울을 동주는 참고 견디는 도리밖에 없다.”(97면) 이미 그는 자신을 “송장”이나(93면) “걸레 조각”, 혹은 “정물”로 느낄 만큼 존엄성을 상실했다. 이웃에는 전염병자인 소녀가 살고 있으나 그녀를 병원에 보내줄 여력도, 그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능력도 없다.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보다 추세기는커녕 더 꺼져 들어가는 것이 분명했다. 주체하기 힘들도록 무거워진 몸을 방 안으로 옮겨 간다. 쓰러지듯이 동주는 한구석에 누워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린내와 구린내 속에서 그는 파리와 벼룩의 엄습을 참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또 죽은 듯이 누워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동주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순이의 그 무거운 신음 소리를 들으며, 순이보다는 되레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다.”(101면)(인용자 강조)

동주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한다. 동거인인 춘자는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주거할 공간을 얻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의 동창의 여동생인 춘자를 피난지에서 우연히 만난다. 그녀로부터 유혹을 받고 동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동주를 주거를 제공하는 대상이자 자신이 입은 상처를 토로하는 하소연의 대상으로 삼는다. 해방과 함께 한국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춘자는 남편이 여수순천반란사건으로 학살을 당하며 혼자 남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만난 3명의 남편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그에게 고백한다. 그러나 정작 춘자는 동주를 배려하고 아껴주기보다는 과잉된 성욕을 보인다. 그는 결국 성관계에 대해 끔찍하게 생각하게 된다. “춘자가 마침내 동주는 징그럽”기까지(110면) 한 상태에서 “성적 흥분을 거의 상실”하고 “산다는 것의 무의미와 우울이 쿵쿵 소리를 내어 다지는” 느낌에 시달린다. 그녀와의 관계가 동주의 정신에 도리어 악영향을 끼친다.

소설에는 전후 남한사회의 비윤리적인 세태가 석방포로의 내면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난다. 비윤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속물이 판치는 세태는 동주에게 끔찍한 순간들로 체험된다. 이웃집의 봉수는 틈만 나면 그의 인격을 모독한다. 그는 동주에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것을 과시한다. “춘자와 동거하면서도 지나치게 점잖”다는(107면) 이유로 “남자가 성욕을 잃게 되면 그건 폐물”이라는 망언을 한다. 동주는 “왜 자기가 이처럼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를 연구”하지만 결국 “무엇을 차근차근 생각하는 힘을 잃”는다. 봉수는 전처의 딸인 순이의 병색이 완연한 모습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다. 순이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물건을 팔아넘겨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한다. 그녀를 돌보는 일은 결국 동주가 떠맡는다. “병명조차 모르는 채 순이의 몸은 나날이 못해만”(99면) 가는 모습을 그는 지켜볼 수 있을 뿐이다. 사타구니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반주검 상태가 된 순이를 병원에 보내줄 돈은 그에



게 없다. 병들어 죽은 순이의 모습은 동주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는 동향의 피난민들과 판잣집촌의 이웃과 동거인에게 의심의 받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인분 투척 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린다. 정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는 정말 자신이 범인이거나 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킨다. 스스로의 정신 상태에 대해 불신하는 병적인 상태에 빠진 것이다. 피난민촌에 있는 동향 출신의 사람들 역시 동주에게 친밀감을 가져다주는 커녕 오히려 그를 따돌린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에 가도 피난민촌의 드센 아주머니들은 허약한 그를 배제시킨다. 피난민인 “함경도 사투리와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아주머니들에게 걸핏하면 괘시를 받”을(100면) 만큼 그는 소외된다. 그러던 참에 누군가 양심을 품고 우물에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낯선 이방인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 없이 범인으로 지목 받는다. 인분 투척 사건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의 의견이 동주가 그랬을 것이라는 데 일치”할(116면) 만큼 그는 소외되어 있다. 이웃인 봉수와 동거인인 춘자까지 그를 범인으로 의심한다.

“그거 참. 아, 먹는 물에 똥을 타문 어떻게 해. 허허, 그거 참.” 봉수가 결눈질로 동주를 보며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그러자, “바르게 말을 해봐요. 오빠가 그렇게 했소? 오빠가 그랬지요?” 춘자는 왈각 대들 듯이 캐묻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 동주는 참말 자기가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째 꼭 그런 것만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무래도 요즈음 자기의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동주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육신보다도 정신이 차차 흐려지는 징조인지도 모른다.(117-118면)(인용자 강조)

동주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채 깊은 우울증적 상태에 빠진다. 그의 모습은 반공국가 남한에서 선전하는 애국청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동주는 정신 착란 상태에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행한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킨다. 이러한 그의 형상은 반공애국청년 담론의 기획이 실패한 지점을 폭로한다. 국가로부터 사실상 방치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마저 고립되며 월남 피난민들에게마저 소외당할 수 있는 것이 석방포로의 실상이었을 것이다. 「생활적」은 남한사회에서 소외된 결과 자기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는 6·25 석방포로의 우울한 내면을 형상화한다.

#### 4. 나가며

「슬픔과 우울증」에서 프로이트는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들이 일상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울증적 상태에 빠진다고 말한다. 석방포로들은 고향과 가족, 친밀한 관계의 상실을 애도할 수 없는 우울증적 주체들이었다. 그들은 포로수용소에서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멸공선전에 투입되며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제 당했다.

미국의 정전협정 체결 시도에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석방반공포로들은 미군의 허가 없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반미적, 반공주의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이용되었다. ‘반공애국청년’이라 명명되며 일시적으로 이용가치를 지니기도 했다. 석방포로 중 일부는 정부가 선전하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과잉응답하며 미국에 대항해 북진통일을 이룩할 것을 강박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석방반공포로들은 친미적 냉전주의에 의해 점차 불필요한 존재로 치부되었다.

김광주의 『석방인』, 김송의 「저항하는 자세」, 손창섭의 「생활적」에는 우울한 내면을 지닌 6·25 석방포로들이 나타난다. 석방포로들은 냉전분단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반공적 민족주의 전파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친미화하는 냉전분단체제 하의 남한사회로부터 배척당했다.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국가원조를 승인받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자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책략이었을지언정<sup>48)</sup> 석방반공포로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이고 사려 깊은 정책은 아니었다. 반공국가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방치된 석방반공포로는 냉전분단체제의 희생양이었다. 6·25 석방포로 형상은 대한민국의 기원적 폭력을 암시한다.

석방포로를 다룬 일련의 소설들은 남한 사회의 체제 선전과 달리 우울증적 상태에 빠져있었던 그들의 내면에 주목한다. 김광주의 『석방인』은 석방포로의 비참한 처지와 그에 따라 형성된 우울증적 증상을 그려낸다. 남한 사회의 홍보와 달리 석방포로들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철은 절망한다. 박철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해가는 과정은 존재증명에 시달리다 반공적 주체로 변모해갔던 무수한 6·25 석방포로들의 강박적인 내면을 짐작케 한다.

김송의 「저항하는 자세」에서 상규는 석방 이후에도 여전히 회색의 캠프가 계속되는 환각에 시달린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진로를 잃어버린 석방포로에게 세계는 수용소의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북진통일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구해줄 수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는 깨닫는다. 갈 곳을 잃은 그는 수용소의 철조망이 눈앞에 드리워지는 환각에 시달린다. 석방포로들에게 남한사회는 여전히 계속되는 캠프에 가까웠다.

손창섭의 「생활적」에서 고통주는 동향의 피난민들과 판잣집촌의 이웃과 동거인에게마저 의심을 받은 끝에 자기에 대해 스스로마저 불신하게 되는 우울증적 주체다. 동주는 공산당의 공포정치와 포로수용소에서의 인민재판의 트라우마가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포로들에게 가

48) 정병준, 「한국전쟁 후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3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246면.

해지는 남한사회의 냉대로 고통 받는다. 피난민촌의 열악한 환경과 각박한 세태는 그로 하여금 살아갈 의지는 물론 그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빼앗아간다. 비윤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속물이 판치는 남한사회의 세태는 동주의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는 동향의 피난민들과 판잣집촌의 이웃과 동거인에게 의심의 받은 끝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인분 투척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의 정신 상태에 대해 불신하는 우울증적 주체다.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소외되는 동주의 모습은 정부에서 선전하는 반공애국청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우울증적 주체로서의 6·25 석방포로의 내면은 이들을 반공애국청년으로 호명하려는 담론권력에 의해 가시화될 수 없었다. 국가는 석방포로들에게 반공애국청년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제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석방포로들은 탈출 당시의 기대와 달리 자유시민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6·25 석방포로들은 강박이나 환각, 자기상실감에 가까운 자기 불신에 시달리는 우울증적 주체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김광주, 「석방인」, 『한국현대문학전집11』, 삼성출판사, 1978(1981).  
 김 송, 「생활하는 자세」, 『현대소설선』, 수도문화사, 1954.  
 손창섭 저, 김종년 편, 『손창섭 단편 전집1』, 가람기획, 2005.  
 『경향신문』, 『동아일보』, 『북한』, 『조선일보』

2. 단행본

김학재 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창비, 2016.  
 송관호, 『전쟁포로-송관호 6·25전쟁 수기』, 눈빛출판사, 2015.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석 보, 『피묻은 철조망-반공애국포로석방비사』, 연합신문사, 1954.  
 송효순, 『대석방-실록반공포로석방』, 신현실사, 1973.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케포이북스 편집부,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 케포이북스, 1954.  
 황세준, 『신생의 날-6·18반공애국청년석방기록』, 공우사, 1954.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1997(2020).

3. 논문

박재홍, 「피트넴의 양면계입이론에 근거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재조명-협상전략과 원색의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 12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173-217면.  
 이동현,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韓國史學輯』 40,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 2006, 195-221면.  
 이민영, 「한국소설에 나타난 애국포로의 서사와 반공국가의 불안」, 『한국현대문학연구』 55, 한국현대문학회, 2018, 247-284면.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수용소의 삶과 ‘적/ 동지’의 구별 정치- 한국전쟁 포로들의 UN군 관리 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9-61면.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69-400면.

- 정병준,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3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245-288면.
- 조명기, 「손창섭의 「生活的」에 나타난 전후의식」,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2005, 667-688면.
- 최미진, 「반공포로의 석방과 국민형성의 딜레마-김광주의 『석방인(釋放人)』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3-65면.
- 홍원경, 「손창섭 소설의 미의식과 정신병리 양상 고찰」, 『우리文學研究』 33, 우리문학회, 2011, 403-433면.

#### 4. 디지털 자료

- 광주군청, 「귀순자 및 반공포로 석방된 자에 대한 징집 및 입영 연기 처리 잠정 규정 (관리번호 BA0172372), 경기도성남시고등동, 1962.4.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13315&dsid=000000000006&gubun=search>>, 최종검색일: 2022.9.24.
- 양영조, 「반공포로 석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52&pageFlag=&sitePage=>>, 최종검색일: 2022.9.24.
- 케포이박스 편집부, 『한국전쟁기 문학수거·제도 자료집』, 케포이박스, 2013,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5230&tabNodeId=NODE03761734>>, 최종검색일: 2022.9.24.

<Abstract>

## Released Prisoners of the Korean War as Depressive Subjects

— Focusing on Kim Gwang-Joo's 『The Releaser』, Kim Song's  
『Position of Resistance』 and Son Chang-Seop's 『Living』

Seon, Minseo

Kim Gwang-Joo's 『The Releaser』, Kim Song's 『Position of Resistance』, and Son Chang-Seop's 『Living』 show the gloomy inner landscape of released POW. In 『The Releaser』, Park Chul feels compulsion to prove his existence because of the people who are trying to verify his ideology. Kim Gwang-Joo reproduces the figure of a freed prisoner who is engulfed in anti-communism to prove himself that he is not a red. In 『Position of Resistance』, Sang-Gyu sees the barbed wire as a hallucination even after escaping from the camp. The government advocates the theory of North Korean unification and focused on its strategy toward the US. The public sympathizes with the government's policy and is engrossed in protests against the armistice talks. Kim Song captures the state of a released prisoners who has lost his course in life. In 『Living』, Dong-Joo loses his mind after being suspected of being a suspicious person. He is alienated from refugees from the north in the refugee camp. Son Chang-seop embodies the unfortunate inside of a released POW who has fallen into a position of distrusting himself.

Key words: Korean War, Released Prisoners of Korean War, Depressive Subjects, Sigmund Freud, 『Sad and Depression』, Kim

Gwang-Joo, 『The Releaser』, Kim Song, 「Position of Resistance」, Son Chang-Seop, 「Living」

투 고 일: 2022년 8월 15일

심 사 일: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2년 9월 22일